your Life

아모레퍼시픽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여성에게 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우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 관리 등 외면의 아름다운 변화를 선물하여

투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스스로 잊고 있던 아름다움을 **향기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감까지 메이크업해드리는 활동입니다.

향기로 단장하다 www.apgroup.com

향장

HYANGJANG



10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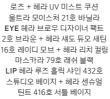
SELF THERAPY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하여, 현재까지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 06 HYANGJANG NEWS 이달의 주목해야 할 뷰티 소식
- 08 BEAUTY SPECIAL HOW TO MAKE BEAUTIFUL LIFE
- 16 MEN'S BEAUTY
 SKIN NAVIGATOR
- 8 COLOR TREND
 MYSTERIOUS and VARIOUS
- 22 LOOK & FEEL WALKING IN AUTUMN
- 28 BEAUTY LAB
 SELF THERAPY
- 34 MAKE-UP PLAY AUTUMN VIBES
- 88 MUSE OF HYANGJANG 유리공예가 양유완
- **42 EDITOR'S PICK** 에디터가 고른 10월의 신제품
- 44 PLACE 현대적 감성으로 다시 태어난 공간들
- 48 ARTIST 칠보 공예 장인 노용숙
- 52 LIFE & MORE 뷰티 피플 3인이 꼽은 인생의 책
- 54 **DESIGN** 바바라 크루거 FOREVER
- 56 ESSAY 일상 속 예술이 필요한 순간
- 58 **RECIPE** 가을 캠핑 푸드 레시피
- TRAVEL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캠핑 스폿



COVER

FACE 헤라 매직 스타터 01호



MAIL INFO@URBANBOOKS.CO.KR



WWW.INSTAGRAM.COM @HYANGJANG_MAG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19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발행 통권 612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취)아모레 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인쇄 (취(태신인팩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다 자인 & 컨셉 기획 아모레퍼시픽 코퍼레이트 디자인팀 제작문의 여유미, 강유선 제품문의 080-023-5454 디자인 록복 스튜디오 기확·편집 어반복스 小工術 에디터 김태경, 김 현의, 오지수 프리랜서 에디터 임재원, 주미리 스타일리스트 곽지아

- ※ 〈향장〉은 www.apgroup.com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 판매용 매거진입니다.





투명 베일을 걸친 듯, 슬릭한 텍스쳐가 마법처럼 바디 피부를 감싸다

더 시그니처 퍼퓸드 바디 컬렉션



The Beauty



(October)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스토어링 나이트 엘릭시어 3ml×16개 / 48만원

POWER OF GOLD

1년 중 가장 건조한 계절인 가을과 겨울 만반의 준비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타 임 레스폰스 스킨 리스토어링 나이트 엘 익시어를 10월 한 달 동안 한정 판매한 다. 40년 역사의 돌송이 차밭에서 수확 한 녹차 씨앗의 오일을 미립자화 하여 귀한 영양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정 교하게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순금 파 우더를 더해 보석처럼 빛나는 피부를 경 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강력한 보습으 로 건조한 계절에도 촉촉하게 빛나는 피 부를 선물하자.

처음 뵙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페가 10월, 신제품과 함께 방문판매 고객을 찾아온다. 새롭게 선보이는 에이스 비타민 C25는 21년 비타민 연구의 결정체로, 순수 비타민 C를 25% 고함량 함유해 주름을 개선하고 단번에 올라 붙는 탄력을 선사하는 고강도 안티에이징 앰플이다. 특허 받은 Dual VitaC Formula™ 제형에 고기능성 미백 화장료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노하우를 담았으니, 아이오페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는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첫 만남이 되어줄 것이다.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리미티드 100ml / 5만7천원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인텐시브 크림 리미티드 100ml / 5만7천원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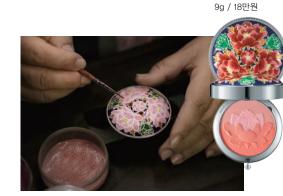
지구 생명의 원천인 생태습지를 보호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프리메라 의 사회공헌 캠페인 '러브 디 어스'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에서는 지구와 수달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킨 엠블럼 디자인을 선보인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하고 콩기름 잉크로 제품 설명을 인쇄하는 등 패키지에 서 친환경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러브 디 어스 캠페인 수익금의 일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의 습지 보호 활동에 기부된다.



PINK

LET'S RUN TOGETHER

여성이라면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유방 건강, 전국의 유방암 환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핑크런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다.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는 핑크런은 유방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검진을 통한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매년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러닝 축제다. 10km와 3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능성 티셔츠가 제공된다. 1인당 1만원의 참가비 전액은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돼 유방암 환자의 수술과 검진에 활용된다고 하니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



전통의 가치를 더하다

매년 전통장인과 협업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선보여온 설화수 실란 메이크업이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다. 국내 유일 대한민국 전통칠보기능전승자 노용숙 장인이 참여한 2019 실란 메이크업은 금속 표면에 다양하고 독특한 색상의 유약을 입혀 불에 의해 완성하는 칠보 기법의 아름다움을 담은 것이 특징. 인삼꽃, 매화추출물 함유로 투명한 피부를 가꿔주는 실란 콤팩트와 천연 유래 색소로 피부에 자연스러운 색감과 생기를 부여하는 블러셔 실란 컬러팩트로 구성된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전국 백화점의 설화수 매장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설화수 실란 컬러팩트

설화수 실란 콤팩트

9a×2 / 18만원





THE SCENT OF **MOONLIGHT**

계절이 바뀌면 나를 감싸는 공기에도 변화를 주고 싶기 마련. 선선한 가을밤의 달빛을 연상케 하는 헤라 블루 라일락 오 드 뚜왈렛이 핸드크림을 포함한 구성의 기획 세트로 출시된다. 서 울의 라일락 향을 직접 포집하여 조향한 블루 라일락 오 드 뚜 왈렛은 라일락의 산뜻함과 화이트 플라워의 관능적인 향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 이번 기획 세트는 유명 포토그래퍼 조기석만의 감성이 담긴 원료 비주얼이 패키지를 장식하고 있 어 특별한 사람을 위한 선물로도 추천한다.



HOW TO MAKE TO BE A UT I FUL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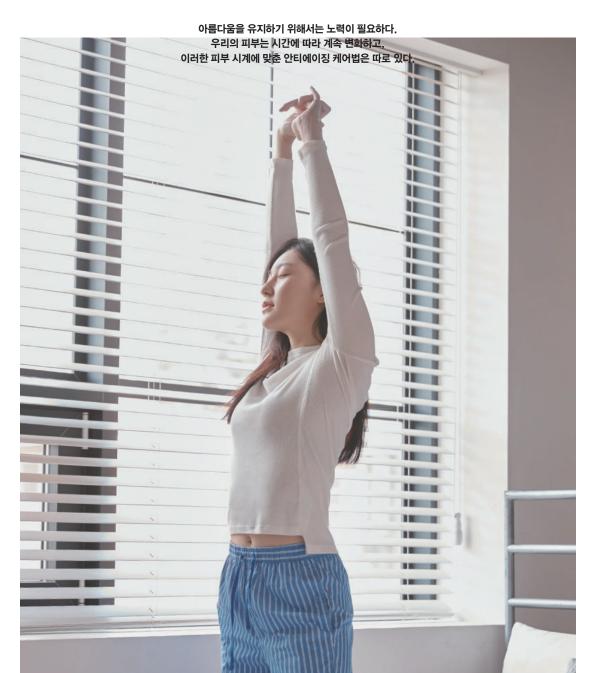
Photographer CHUN YOUNG SANG Model JI SUN Hair&Make-up GOO HYUN MI Stylist KWAK JEE AH Illustrator SOKIDAHEE, JO SUNG HEUM

우리는 누구나 근사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은 얼굴에 하나둘 주름을 남기고, 나이 드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다. 세월 앞에 당당하게, 아름답게 나이드는 법에 대하여.



BEAUTY ROUTINE

for WELL-AGING















피부 자생력 높이기 피부의 힘이 약해지면, 외부 유해 요소들과 시시각각 싸워야 하는 피부는 본연의 방어 체계를 잃고 지쳐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피부 자생력을 높여주는 제품을 발라 피부 스스로 자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 피부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1 설화수 자음생크림 피부 방어력과 자생력을 키워주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 / 25만원 2 해라 시그니아 세럼 3백만 나르시스 식물세포의 강한 생명력으로 윤기 있는 피부로 케어해준다. 50m / 22만원 3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워터 피부를 진정시키고 전화해 맑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스킨 180ml / 3만원





PM 10:00



피부 체력 재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전후로 세포의 턴오버가 활발해지고, 피부는 본격적으로 재생모드로 돌입한다. 따라서 자기 전에 크림을 덧 바르거나 팩을 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영양감 있는 크림을 도톰하게 바르거나, 잠들기 전 팩으로스페셜 케어를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피부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1 설화수 자음생 아이에센스마스크 인삼 속 수분과 영양 성분을 응축해 지친 눈가에 즉각적인 생기를 부여하고, 탄탄한 눈가 피부를 완성한다. 8매 / 7만5천원 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스토어링 나이트 엘릭시어 녹차 씨앗의 귀한 영양분으로 하루 밤사이 눈부시게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한다. 3ml×16개 / 48만원 3 설화수 명의본초앰플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는 시기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택한 피부로 가꿔주는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앰플 8ml×4개 / 20만원



유수분 밸런스 재정비 오후의 피부는 과한 유분으로 번들거리며, 모공이 눈에 띄고 칙칙해지기 쉽다.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더 많은 피지를 분출하므로,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등 노화의 원인이 된다. 안티에이징 기능을 겸비한 제품을 이용해 수분과 영양을 듬뿍 공급할 것.

1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아이 크림 연약한 눈가 피부를 위한 보습 아이 크림 30ml / 3만8천원 2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의 에너지가 꽉 찬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한다. 50ml / 20만원 3 해라 시그니아 크림 바르는 즉시 피부에 밀착되어 피부 탄력과 촉촉함을 되찾아준다. 60ml / 28만원





영양 집중 공급 피부가 집중적으로 재생을 시작하는 시간은 잠들고 난 뒤 약 3시간 후. 피부의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는 시간에 맞춰 나이트 스킨케어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잠들기 3시간 전이 바로 피부 케어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혈류를 자극하는 마사지와 함께 안티에이징 크림을 발라주면 피부 순환이 좋아져 영양감을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으며, 침투 시킨 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오일을 덧발라 보호막을 덮어주는 것도 잊지 말자.

1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저브 크림 녹차 안티에이징 에너지가 밀도 높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50ml / 50만원 2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25 순수 비타민 C 25%, 비타민 E, 프로레티놀 함유로 깊은 영양감과 단번에 올라 붙는 탄력을 선사하는 고강도 안티에이징 앰플 20ml / 7만원

HYANGJANG 11





안티에이징을 위한 첫 단계는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무너진 신체 리듬을 회복하기에 안성맞춤인 몸 상태를 만드는 것, 건강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한다면 한층 더 어려진 신체와 피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기 -

신체 나이를 되돌리려면 먼저 기본에 충실할 것. 피부 기초를 다지는데 클렌징이 빠질 수 없듯, 바 디 케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순환 을 원활히 해주어 몸의 기초를 탄탄히 세워주는 클렌징과 애프터 케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샤 워 타임에 설화수 바디워시 백은향으로 몸을 부 드럽게 클렌징한 후 바디로션 백은향으로 피부 에 수분과 탄력을 채워줄 것. 바디워시의 해송자 유 성분이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며, 아데노신을 함유한 바디로션은 바디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 움을 주어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다. 또한 설화 수 백은향 바디라인은 매화의 은은한 향을 담고 있어 향 자체만으로도 기분 좋은 힐링 타임을 가

1 설화수 바디워시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고, 마일드한 젤 포뮬러가 피부에 촉촉함을 남기는 바디워시 250ml / 4만원 2 설화수 바디로션 백은향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며, 부드럽게 몸을 감싸 피부에 보습, 탄력, 윤기를 선사하는 바디로션 250ml / 6만원

CHECK LIST

- 얼굴이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
- 다크서클이 도드라지고 피부 톤이 칙칙하다
- □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 □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화장이 뜬다
- □ 손발이 차고 저리다
- □ 베개 자국이 잘 안 없어진다
- □ 눈이 자주 충혈된다

몸 속 노폐물 제거하기 ----

피로는 노화의 가장 큰 적이다. 크게 무리하지 않 아도 금방 피곤해지고 얼굴이나 몸이 쉽게 붓는 다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증거, 체내 노폐물을 관리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림프 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때 다. 체크 리스트 중 3개 이상 체크했다면 망설이 지 말고 셀프 디톡스 마사지를 시작할 것. 매일 스킨케어나 샤워 타임에 잠깐 마사지해주는 것 만으로도 피부 톤이 화사해지고 몸이 개운해지 면서 젊어지는 듯한 활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FACE DETOX 젊은 피부로 가꿔줄 얼굴 림프 마사지



STEP 1 **광대** 얼굴 부위 중에서는 특히 광대뼈 아래쪽에

독소가 잘 쌓인다. 광대 위로 원을 그리듯 눌러주면서 가볍게 마사지해보자.



STEP 2

눈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눈앞 쪽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 쓸어줄 것. 다크서클이 심한 눈 아래쪽에는 아이크림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STEP 3

턱 턱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귀 아래쪽까지 지압하듯 눌러주며 쓸어 올리면 처진 피부를 끌어 올리는 리프팅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BODY DETOX 신체 나이 되돌리는 상체 림프 마사지



STEP 1

목 손가락 전체를 이용해 턱에서부터 어깨까지 힘을 주어 쓸어내린다. 일반 미용 마사지와는 달리 림프가 흐르는 심장 방향으로 쓸어내려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포인트.



STEP 2

겨드랑이 림프샘은 몸이 접히는 부분에 집중된다. 주먹을 쥐고 겨드랑이를 통통 두드려보자. 딱딱하게 뭉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힘을 주어 지압해줄 것.



STEP 3

쇄골 넓은 림프샘이 분포하는 쇄골 마사지로 마무리. 손가락 끝으로 쇄골뼈를 따라 꾹꾹 눌러준 다음, 손바닥을 펴 쇄골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어 독소를 빼내자.

12 HYANGJANG HYANGJANG 13



---- 안티에이징을 돕는 식습관 ---

1 과일 먼저 먹기 식사 1시간 전에 식이섬유가 풍 부한 토마토, 사과 등을 간식처럼 먹어보자. 식사 전 혈당을 약간 올려주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2 30분. 식사 시간 유지하기 소화의 첫 단계는 입안에서 침과 음식물이 잘 섞이게 하고 음식물 을 잘게 부수는 것이다. 30번 이상 오래 씹는 것 을 습관화 하자.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30분의 시간을 정해두고 천천히 식사하 는 습관을 길러보자.

3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 양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영양소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에 힘이 없고, 성장이 잘 되지 않으므 로 다양한 음식물을 통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 다. 특히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음식을 매끼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아름다움을 위한 뷰티 푸드 -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 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안티에이징 푸드를 제안한다.





브로콜리 영양소가 높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건강하고 윤기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블루베리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떨어지는 눈가 피부의

주름을 예방해준다.

탄력이 가장 먼저

비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각종 비타민과 나트륨,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키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고. 피로감을 줄여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아보카도 다량의 단백질과 11종의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피부 탄력과 보습에 탁월하다.



케어해주는 100억 유산균 제품 1g×60포 /

함유되어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5만5천원 3 바이탈뷰티

트루아이 루테인 성분이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180mg×30캡슐) +

(160mg×30캡슐) /

당근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시금치 노화를 방지해주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녹즙으로 만들어 먹으면 수분 공급에도 효과적이다.



사과 비타민 A, B1, C가 풍부하여 거칠어진 피부를 투명하고 매끄럽게 해준다.



14 HYANGJANG HYANGJANG 15

SKIN NAVIGATOR



올인원 제품 하나로 남성들의 세분화된 피부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다. 피부 타입과 고민에 따라 맞춤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

수분은 부족하지만 유분이 넘쳐난다면

오후만 되면 T존이 번들거려 기초 제품을 많이 바를 수 없어요. 건조함과 유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 까요? 유분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유는 수분과 유 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건조한 피부는 오히 려 유분을 과도하게 분비한답니다. 헤라 옴므 스페셜 라인은 펜타-파워 콤플렉스™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 하고, 스마트 파우더 성분이 피지를 조절해 유수분 밸 런스를 잡아줘요. 피부 건조함을 해결하고 오후가 되 도 번들거리지 않고 보송하게 유지해줘 복합성, 지성 피부에게 특히 추천해요.

헤라 옴므 스페셜 2종 기획 세트 에센스 인 스킨 125ml + 에센스 인 에멀전 110ml + 에센스 인 스킨 20ml + 에센스 인 에멀전 20ml + 퓨리파잉 클렌징 폼 25ml / 8만원





안색이 어둡고 피부가 칙칙하다면

건조하던 피부가 최근 들어 칙칙하고 어두워졌어요. 안색이 어두워지니 전체적인 컨디션도 저하돼 보여 고민이에요. 컨디션이 저하된 피부는 각종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워요. 헤라 옴므 블랙 퍼펙 트 라인의 블랙 퍼펙트 블렌딩™ 성분은 피부의 에너 지를 끌어 올려 각종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죠. 피부에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피부에 활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피부 생기와 윤기가 되돌아 온답 니다. 여기에 블랙 트러플과 아사이베리 추출물이 더 해져 칙칙해진 피부 톤이 맑게 개선돼요.

헤라 옴므 블랙 퍼펙트 2종 기획 세트 블랙 퍼펙트 스킨 120ml + 블랙 퍼펙트 로션 120ml + 블랙 퍼펙트 스킨 20ml + 블랙 퍼펙트 로션 20ml +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원한다면

피부 위에 스킨케어 제품이 겉도는 느낌이에요. 바른 듯 안 바른 듯 감쪽같이 흡수되지만, 피부 속만큼은 **촉촉하게 채워주는 제품은 없을까요?** 남성들 대부분 이 스킨케어 제품을 선택할 때 사용감과 발림성을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촉촉한 보습막이 답답하게 느 껴진다면 가벼운 사용감과 빠른 흡수감을 지닌 헤라 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라인을 추천해요. 천연 보습 인자 베타인을 함유해 바르는 순간 시원한 청량감과 촉촉함이 느껴져요.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돼 잔 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

헤라 옴므 매니시모 인텐시브 2종 기획 세트 매니시모 인 텐시브 스킨 100ml +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전 100ml + 매니시모 인텐시브 스킨 30ml + 매니시모 인텐시브 에멀 전 30ml / 14만원



나만의 특별한 향을 원한다면

남성 전용 스킨케어 제품에선 모두 비슷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남다른 취향을 지닌 이들을 위해 특별한 향을 지닌 제품을 추천해주세요. 최근 스킨케어 제품 을 고를 때 향까지 꼼꼼하게 고려하는 그루밍족이 많 아졌죠. 설화수 본윤 세트는 기존 남성 전용 제품에선 접할 수 없던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은은한 솔 향과 침향, 백단향에 깊고 풍부한 우디향이 어우러진 오리엔탈 우디 계열의 향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해

설화수 본윤 2종 기획 세트 본윤에센스 140ml + 본윤유액 90ml + 리프레시 클렌징폼 15ml + 본윤에센스 15ml + 본윤유액 8ml / 12만5천원





COLOR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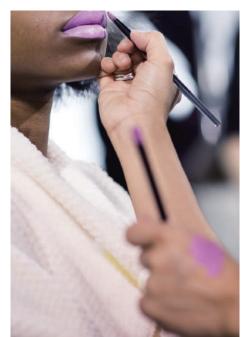
팝 핑크 / 라일락 / 코튼 **핑크 / 로얄 퍼플** 오묘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완성하는 아이 섀도 1.8g×4 / 4만5천원 **2 헤라 페이스** 디자이닝 블러셔 2호 실루엣 모브 입체감 있는 페이스 메이크업을 디자인하는 맑고 투명한 색상의 럭셔리 블러셔 10g / 4만8천원

1 헤라 섀도 홀릭 4D 3호





and VARIOUS



올가을 신비로운 퍼플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번 FW 시즌에서 연 한 파스텔 컬러의 연보랏빛부터 짙은 퍼플까지 다양한 퍼플 컬러의 활약 을 확인할 수 있다. 발렌티노 컬렉션의 모델들은 연한 퍼플 컬러를 눈 앞 머리부터 눈꼬리까지 아이홀 가득 펴 발랐고, 마이클 코어스 모델들은 반짝이는 펄이 더해진 짙은 퍼플 섀도를 아이홀은 물론, 언더라인까지 채워 드라마틱한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또한 아이그너 쇼의 모델들은 눈 꼬리와 관자놀이 C존을 넓게 이어 블러셔처럼 연출해 수채화처럼 맑은 퍼플 메이크업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퍼플 메이크업의 포인 트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매트하게 마무리하는 것. 매트한 피부 위 퍼플 컬러가 돋보이며 신비로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자아낸다.















Photographer Model Hair arrisa Makeap arrisa Stylisa KIM JAE HOON PARK SERA LEE IL JOONG KIM BU SUNG KWAK JEE AH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을 머금고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10월. 탐스럽게 익은 열매와 유난히 짙은 빛깔과 향의 꽃들로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





청명한 하늘, 붉게 물든 열매와 황금빛 들판. 이 세상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가을. 가을의 절정을 알리는 깊고도 오묘한 색감에 빠져든다.



설화수 실란 콤팩트, 실란 컬러팩트 일곱 가지 아름다운 보석의 빛깔을 담은 칠보의 색채를 구현한 디자인을 담아낸 프리미엄 팩트 실란 콤팩트 9g×2 / 18만원, 실란 컬러팩트 9g / 18만원

-14% 주름 감소

+15% 탄력 개선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인체적용시험 결과 시험대상자 42~56세의 여성 31명 시험기간 2019.1.21~2019.3.5 (6주간) 시험기관 (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세월을 거스르는 타력눈매

눈가 주위는 다른 부분에 비해 피부가 얇고 예민해 노화의 징후를 고스 란히 드러내기 쉽다. 이미 눈가에 하나둘씩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아이 케어 제품에 아낌없이 투자해보자. 설화수 진설 라인의 아이에센 스와 아이크림은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능을 지닌 적송을 담아 이미 노 화가 진행된 피부에도 탄력을 되찾아 준다. 곧 해가 바뀌고 나이는 한 살 더 늘지라도 눈가 고민만큼은 덜 수 있을 것이다.

진설 라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진귀한 적송의 효능

적송 DAA 성분은 피부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적송 수피에서 추출한 RPCC는 노화 세포를 허물고 젊은 <u>세포로</u> 더욱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진설 라인의 품격 있는 향

동양의 진귀한 원료가 어우러진 깊이 있는 향이 특징. 숲속에 들어온 듯한 신선한 소나무 향에 고급스럽고 은은한 인삼 향이 더해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골라 쓰는 제형

젤 텍스처의 아이에센스와 쫀쫀하게 눈가 피부를 감싸는 크림 텍스처의 아이크림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돼 자신의 피부 타입에 꼭 맞는 제형을 골라 사용할 수 있다.

"찬바람이 불면 피부가 바싹 마른 듯 푸석해지죠. 특히 눈가는 크림을 열 심히 발라도 금세 건조해지곤 했는데, 진설아이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하 니 눈가 피부에 윤기가 생겼어요. 골든아이케어마사저를 사용해 바르면 부기는 물론 눈의 피로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김현의** (〈향

크림은 프레시한 소나무 향이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크림은 쫀 력이 필요한 팔자주름에 함께 바르기도 좋아요." 오지수 (〈향장〉 에디터)

1 설화수 진설아이에센스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가 피부 컨디션을 케어해 눈가 칙칙함과 붓기, 혈행을 개선해주는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5ml / 27만원 2 설화수 진설아이크림 쫀쫀한 텍스처가 눈가피부의 구조적인 노화 고민을 Sulwhasoo 해결해 또렷하게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25ml / 27만원 진설아이에센스 Sulwhasoo TIMETREASURE GORATING EYE CREAM 진설아이크림 변덕스러운 환절기를 보내고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기 앞서, 고생한 몸과 피부를 위해 셀프 테라피 시간을 가져보자.

지친 피부를 위한 안티에이징 제품과 신체에

생기를 되찾아 줄 이너뷰티 제품 하나면 충분하다.

밤사이 눈부시게 달라진 피부

이것저것 다 발라봐도 무용지물인 피부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피부에 영양을 집중 공급하고, 피부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스페셜 케어 제품을 선보인다. 2년에 한 번 수확할 수 있는 진귀한 녹차 나무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과 아모레퍼시픽 핵심 원료인 앱솔루티™를 담은 엘릭시어가 일시적으로 피부 건조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메마르지 않는 피부로 가꿔준다.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스토어링 나이트 엘릭시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눈에 띄는 효과

녹차 나무 씨앗 오일과 타임 레스폰스 라인의 앱솔루티™가 만나 밤사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즉각적인 피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

극강의 신선함

씨앗 수확 후 가장 신선한 상태의 오일만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10월 단 한 번만 만나볼 수 있다. 1년 중 피부가 가장 건조한 가을. 겨울 피부를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제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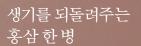
끈적임 없는 사용감

오일의 산패와 변질을 방지하고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크림과 비슷한 질감의 제형으로 만들었다. 피부에 막을 씌워주어 밤사이 피부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안으로는 영양을 공급한다. "메마른 피부에 심폐 소생이 필요할 땐 가격이 높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바른 엘릭시어가 피부에 묵직한 보호막을 씌워 영양분이 깊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낙엽처럼 푸석했던 피부는 온데간데없이 피부 속부터 수분과 탄력이 차오르는게 느껴진답니다." 김현의 ((항장) 에디터)

"1회 사용량이 넉넉한 편이라 얇게 여러 번 차곡차곡 쌓아주듯 흡수시켜 주는 게 좋아요. 크림과 비슷한 질감이라 평소 오일 사용을 꺼렸더라도 부 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탄력과 생기가 사라져가는 가을, 겨울의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똑똑한 제품이죠." 오지수 ((향장) 에디터)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스토어링 나이트 엘릭시어 녹차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이 푸석한 피부에 꽉 찬 영양감을 선사하는 나이트 전용 스페셜 케어 아이템 3ml×16개 / 48만원





신체 활력이 떨어지거나 생기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건 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홍삼의 효능을 가득 담은 명작수는 면역력 증진, 피로, 혈행,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에 도움 을 준다. 부쩍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기력을 잃었다면 하루 한 번, 단 하나의 앰플로 일상의 생기를 되찾아 보자.

귀한 원료

바이탈뷰티 명작수

고품격 천삼화 홍삼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고농축 홍삼 앰플

20g×60앰플 / 26만원

엄격하게 선별된 우수한 홍삼만 사용하여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돌려준다. 4년 이상된 인삼 일생 중 단 한 번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삼열매를 부원료로 담았다.

안심 원료 합성첨가물인 보존료, 착향료, 작은 사이즈의 앰플이라 소포제가 들어가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천연 성분만으로 맛을 내 홍삼의 쓴맛을 최소화해 풍미를 살렸다.

1일 1앰플 간편 섭취 휴대가 용이하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누구나 섭취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많지만, 특히 명작수에 손이 가는 이유 는 확실한 효능과 간편함 때문이에요.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되는 느낌이죠. 게다가 파우치에도 쏙 들어갈 정도로 작은 사이즈라 집이나 회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김현의** (〈향장〉 에디터)

"감기에 취약해지는 가을, 겨울엔 명작수를 꼭 챙겨 먹어요. 먹기 전과 후 의 컨디션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홍삼의 효능이 농축된 진한 맛이지만 끝에는 단맛이 맴돌아 쓴맛을 싫어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오지 수** (〈향장〉 에디터)

32 HYANGJANG

이탈뷰티

MAKE-UP PLAY AUTUMN Photographer KIM OI MIL Model JUNG CHEONG SOL Hair artist YOON SUNG HO Make-up artist AMOREPACIFIC LUXURY MAKE-UP TEAM Stylist KWAK JEE AH

FALL IN LIPS

— LOOK 1 —

립 메이크업을 강조한 원 포인트 메이크업은 가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풀립으로 채워 바르되, 정교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살짝 번진 듯 자연스럽게 물들여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도 좋다.

브라운 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를 입술 전체에 꽉 채워 발라 붉게 물든 가을의 단풍을 표현한다.



매끈한 피부를 만든 뒤, 페이스 디자이닝 하이라이터를 얼굴 윤곽에 터치해 입체감 있는 베이스를 완성한다. 섀도 듀오 새틴 16호 레이디 모브 컬러를 아이홀 전체에 자연스럽게 펴 바르고, 로즈 브라운 컬러를 레이어링해 깊이감을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립 젤 크러쉬 349호 더모스트 레드 컬러를 입술 가득 채워 자연스럽게 펴 바른다.

HOW TO \longrightarrow







PERFECT BLACK EYES

— LOOK 2 —

완벽한 풀 메이크업은 부담스럽다. 이번 가을엔 깔끔한 블랙 아이라인을 그릴 차례. 얇은 블랙 라인은 미니멀하지만, 그 자체로도 시선을 이끄는 강렬한 힘을 가졌다. 점막 가까이 블랙 라이너를 얇고 길게 그린 다음. 언더라인까지 채워 깊이 있고 또렷한 눈매를 강조한다. 차분한 느낌의 말린 장미 컬러를 입술 중앙부터 자연스레 물들여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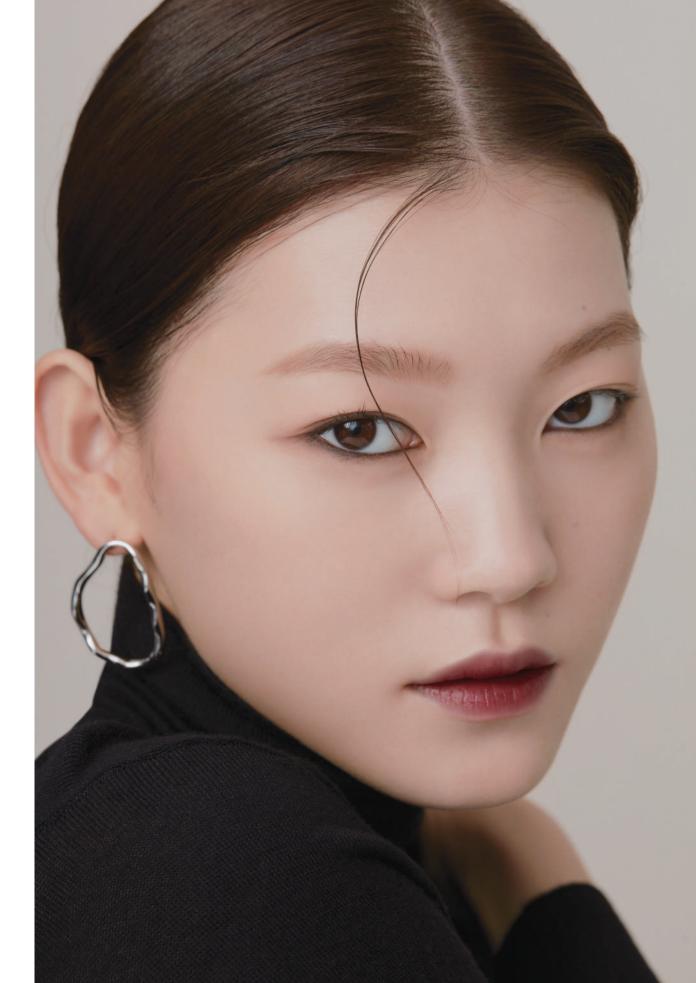
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커버 라이트 아이보리를 눈가. 코 옆 넓은 부분에 발라 환하고 입체감 있는 피부를 만든다. 아이 디자이너 펜슬 01호 블랙을 사용해 아이라인을 점막 가까이 채워 눈꼬리까지 길게 빼고. 언더 부분도 깔끔하게 그려 날렵한 눈매를 완성한다. 루즈 홀릭 샤인 298호 쿠퍼 오렌지를 입술 중앙부터 터치해 자연스럽게 펴 발라 부드럽게 연출한다.

HOW TO \longrightarrow









10g / 3만5천원

LET'S LIVE NOW

Interview PARK HAN BIT NU RI Photographer LEE JU YEON Stylist PARK SUN YONG

인생의 황금기가 있다면 언제로 규정할 수 있을까? 다양한 유리라는 뜻의 '모와니 글라스'의 양유완 작가는 말한다.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도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겠다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느긋하게 9시~11시 사이에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해요. 보통 낮 시간은 회사 업무를 보거나, 미팅을 하거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낮에도 작업을 하지만 보통은 저녁에 일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밤 8시~10시까지 일하면 얼추끝이 보이죠. 어제처럼 바쁜 날에는 새벽 4시까지 작업할때도 있어요.

작업이 잘 되는 본인만의 루틴이나 환경이 있나요? 늘 작업실에 음악을 틀어요. 노래 선곡은 날씨나 기분에 따라서 다른데 재즈나 클래식을 좋아해요. 유리공예가 정교한 작업이라 작가의 기분을 타거든요. 작업하다 보면가끔 예민하거나 날카로워질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을 음악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가끔 음악에 심취해서 자아도취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 기분이 좋아요. 요즘 빠

진 노래는 Toulouse의 'I Will Follow You'라는 곡이에 요. 클래식은 베토벤의 '비창'을 좋아하고요.

'모와니 글라스'는 전통과 현대, 투명과 불투명, 동양과서 양 등 상반된 주제를 작품에 투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까요? 이 세상에는 상반된 것들로 가득해요. 유리공예라는 것도 옛날 전통방식을 표방했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계나 기구는 현대 문물의 영향을 받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최첨단 방식의 유리공예 기술이 발명되겠죠. 투명과 불투명이라는 경계도 투명한 유리에 새로운 소재를 섞으면 어쩔 수 없이 불투명하게 변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가장 동양적인 건 무엇이라고 생각 하세요? 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하는 비정형 유리 공예에도 선이 담겨 있어요. 동양의 미는 각이 지거나 모













난게 아니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선에 있어요. 보는 사람까지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실생활에도 많이 녹아 있어요. 사용하는 물건이나 집의 형태, 음식까지. 심지어 우리 체형만 봐도 자연스럽잖아요. 외국인들은 눈도 부리부리하고 얼굴선이 굵고 각진 이들이 많은데, 동양인은 얼굴형이나 몸에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정감이 가나봐요. (웃음)

작가님의 유리공예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정형이죠. 자로 잰 듯 기계처럼 딱 떨어지 는 건 공장, 백화점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박물관에서 본 달 항아리가 비정형의 모양이었는데 어 느 각도에서 봐도 다른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웬만하면 비정형적인 걸 추구해요. 유리공예는 손맛이 중요하고 그게 느껴져야 해요. 유리 공예 전에는 산업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재 에 관심이 많아 유리에 소재를 많이 섞는 편이에요. 이를 테면 은 같은 금속을 섞거나 우레탄이나 옻칠을 하기도 하죠. 유리에 베이킹 소다를 섞으면 유리 안에 기포가 생 겨요. 신기하죠?

원래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 유리공예를 시작하 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차를 좋아해요. 운전하는 것 도 즐기고요. 산업디자인을 배우면서 자동차의 눈, 헤드 라이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산업디자인은 자로 잰 듯 딱 맞아야 해요. 0.5mm라도 오차가 생기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반면 유리는 오차 범위 규격이 1cm 내외로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가 예술이 되기 도 하죠. 그게 매력이에요. 유리공예는 작업하는 사람뿐 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여유를 선사하는 것 같아요. 전공을 바꾼 이후에 쭉 한길만 걸은 건가요? 네 저 역시 여 느 유학생들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갤러리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열었던 졸 업 전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죠. 그때 당시 전시 제목이 '연(緣)'이었는데, 정말 인연을 만났어요. 졸업 전시 에 왔던 한 컬렉터가 이탈리아의 가구 박람회를 추천해 줬고 그게 계기가 되어 영국 런던에서도 전시회를 열수 있었죠. 점점 '내 것을 해야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주고받았던 한두 개의 명함. 그게 시작이었 어요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뭔가요? 소비자의 취향? 트렌드? 혹은 대중성일까요? 저를 먼저 생각해요. (웃음) 저도 누군가의 소비자잖아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이게 편할까? 쓸 만할까? 제가 만족스러우면 다른 누군가도 만족스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보다는 제가 쓰고 싶은 걸고민하는 편이에요. 제가 만든 접시에 반찬이나 주전부리를 올려서 직접 먹어보고, 손님이 오면 직접 만든 물병에물을 담아서 내어드리죠. '좀 더 커야겠다', '여긴 오목하게 만들어야 편하겠다'이런 식으로 직접 써보고, 다음에 만들 때 반영해요.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제품도 모두 제가 만든 거예요. 꽃이 담겨있는 화병, 벽에 걸려있는 유리작품까지요.

작업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마인드 컨트롤.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제가 예민하면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작가는 자기가 다루는 소재를 닮는다'고 말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유리가 뜨거울 때는 잘 깨지지 않거든요. 농담으로 의지가약한 사람을 '유리 멘틀'이라고 하잖아요. 틀린 말이에



요. 제 유리는 두껍고 잘 깨지지 않아요. 어쩌면 돌보다 단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민할 때는 유리가 얇 아지고 쉽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를 다스리고 작업을 시작하죠.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차를 한 자해요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나요?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여행.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제가 경험이 많아야 누군가가 '이런 음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들 수 있죠. 유리는 식기로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먹는 것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해요. 게다가 음식은 어떻게 플레이팅 하느냐에 따라맛이 달라지거든요. 스트리트 푸드도 좋아하고 고급스러운 다이닝도 좋아해요. 그리고, 혼자 멍하니 있는 것도 즐겨요.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다니는 건 영감을 얻기위해 저를 채우는 시간이라면 가만히 멍 때리는 건 저를 비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하거든요.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정신없이 살고 있으니 이렇게 비우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요즘 고민은 없나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일도 적당히 하고 여러모로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라고 물었어요. 영화〈어바웃 타임〉을 보면 과거로 순간 이동을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딱히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없더라고요. '지금을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꽤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HERA CELL ESSENCE Cell-Bio Fluid Sync™ 2.0

헤라 셀 에센스 대용량

1단계 에센스로 안성맞춤. 우윳빛 컬러의 워터 타입 에센스가 빠르고 편안하게 흡수되며 다음 제품의 흡수와 효과를 배가시킨다. 225ml / 7만5천원

설화수 바디워시 백은향 마일드한 젤 포뮬러가 조밀하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 전신을 부드럽게 클렌징하고 촉촉한 피부로 마무리해준다. 250ml / 4만원

설화수 바디로션 백은향

끈적임 없이 피부에 산뜻하게 흡수될 뿐만 아니라 매화의 은은한 향을 담아 기분 좋은 바디 케어가 가능한 바디로션 250ml / 6만원



editor's Photographer PARK JI HONG

그 여느 때보다 예민해진 환절기 피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고른 10월의 뷰티 아이템.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25

비타민C, 비타민E, 프로레티놀 함유로 깊은 영양감을 느낄 수 있는 고강도 안티에이징 앰플. 독점 특허받은 Dual VitaC Formula™ 제형이 쫀쫀한 탄력을 선사한다. 20ml / 7만원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리미티드

풍부한 보습감의 워터리 크림에 귀여운 수달을 더했다. 친환경 캠페인 '러브 디 어스'의 2019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생태습지 보호 활동에 쓰인다. 100ml / 5만7천원



설화수 실란 콤팩트

인삼꽃, 매화추출물 등의 원료를 초순수 파우더에 담아 은은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얼굴빛을 완성해주는 콤팩트. 우리나라 전통 공예 기술인 칠보 기법을 표현해 소장 가치를 더했다. 9g×2 / 18만원

헤라 더 시그니처 퍼퓸드 바디 누드 로션 싱그러운 플라워 부케 향기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바디 로션, 도포 후 부드럽게 스며들어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200ml / 6만5천원

헤라 더 시그니처 퍼퓸드 바디 샤워 오일 얇고 투명한 오일 타입의 제형으로 우수한 롤링감과 촉촉함을 느낄 수 있다.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낸 뒤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클렌징하고 물로 씻어낼 것. 200ml / 5만5천원



H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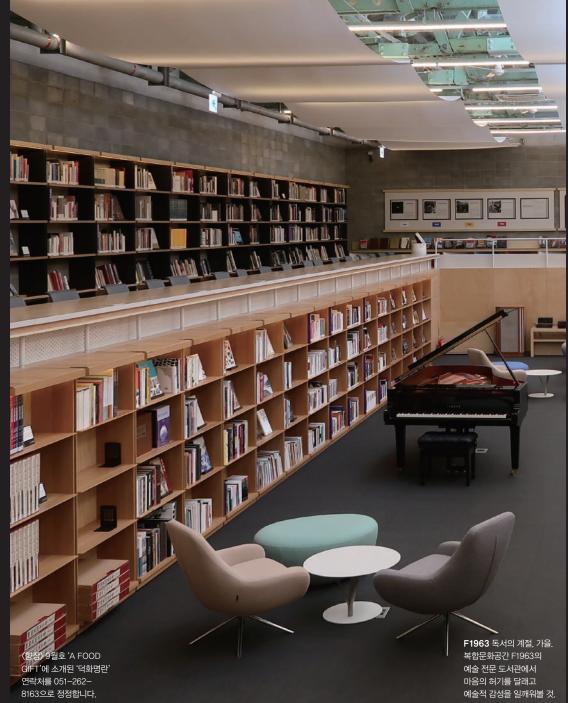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잠들기 직전 간편한

섭취로 피부와 신체의 생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콜라겐 앰플. 스킨케어 하듯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으로 속부터 건강한 피부를 경험해보자.

25ml×30앰플 / 10만원

\overline{The} Beauty





DE INE DUIN

과거의 향수에 현대적 감성을 불어넣어 새롭게 태어난 공간들을 모았다.

소다미술관



화성시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자, 국내에 몇 안되는 디자인 & 건축 테마 전시 공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대형 찜질방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디자인과 건축이라는 테마에 걸맞게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에 화물 컨테이너를 조합해 공간을 다채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CHECK POINT 지붕 없이 외벽만 남겨둔 야외 전시장 '루프리스 갤러리 Roofless Gallery'에 서 실내와 외부를 넘나드는 독특한 작품들을 만 나볼 것! 올해 1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사물의 집: HOUSE OF THINGS〉전에서는 일곱 명의 작가가 꼽은 일곱 가지 사물에 담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위치 경기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운영 시간 화~일, 오전 10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70~8915~9127

카페배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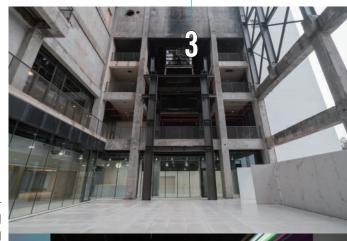
단순히 개성 있는 네이밍의 카페라고 생각하면 오산. 과거 멍게를 양식하던 배양장이 세련된 감 성의 카페로 재탄생했으니, 공간의 근원이 곧 이 름이 된 셈이다. 이곳의 메인 인테리어 포인트인 바다 전망은 잡다한 생각들을 잠시 잊게 해주는 힘을 지녔다.

CHECK POINT 공간의 일부는 아직도 멍게 배 양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카페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매력 포인트. 푸른 바다와 함께 즐기 는 아인슈페너와 밀크티의 맛 또한 일품이다.

> 위치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함박길 51 시간 수~월, 오전 11시~오후 9시 (매주 화요일 휴무) 문의 0507-1323-6330



부천아트벙커B39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던 소각장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름의 B에 담긴 의미 중 하나인 'Borderless'는 '경계가 없다'는 뜻으로, 개방적인 태도와 마인드를지닌 공간임을 나타낸다. 설치, 디지털 아트, 라이브 퍼포먼스 등 장르의 구분 없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모든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CHECK POINT 쓰레기 저장조와 제어실 등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마치 과거로의 여행을 떠 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별도로 마련된 스 튜디오는 동호회,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목 적을 가진 모임 공간으로 활용해보자.

> 위치 경기 부천시 삼작로 53 운영 시간 화-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32-321-3901

서플라이



담양의 오래된 양곡 창고를 개조해 만든 카페. 창고형 카페는 이미 익숙하지만, 이곳 서플라이 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자칫 칙칙할 수 있 는 공간에 꽃과 식물, 샹들리에 조명 등을 조화 롭게 배치해 묘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 카페 인 테리어 소품으로는 독특하게 선베드가 마련되 어 있어 서플라이만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 어낸다.

CHECK POINT 이곳의 포토 스폿인 네온사인 앞에서의 인증샷은 필수 코스다. 추천 메뉴로는 서플라이 로고가 박힌 더치커피 보틀에 초콜릿 과 다쿠아즈를 곁들여볼 것!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14 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10시 문의 0507-1418-5666

45년의 역사를 지닌 와이어 공장이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 던지고 친환경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났다. 공장 기존의 골조는 최대한 살리되 대나무숲과 키친가든 등 그린존을 더해 도심 속의 숲과도 같은 공간을 연출했다. F1963 공간의이름 속 F는 공장을 뜻하는 Factory에서부터 Fine Arts(순수 예술), Forest(숲), Family(가족), Fun(재미) 등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

CHECK POINT 갤러리, 도서관은 물론 카페와 파인 다이닝까지 갖추고 있어 가족과 함께 온 종일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 가드닝에 관심이 있다면 온실에서 자연식 먹거리를 즐기고 가드닝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원예점을 둘러봐도 좋다.

위치 부산 수영구 구락로123번길 20 시간 매일, 오전 9시~자정 (매장별 상이) 문의 051-756-1963





F1963

비플러스엠 애오개123



대여가 가능하니 감각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면 눈여겨보자.

• 위치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6길 7-14 시간 화-일, 오전 11시~오후 9시

문의 02-336-7181

(매주 월요일 휴무 / 매장별 상이)

가구 브랜드 비플러스엠이 운영하는 복합 공간

으로, 가구 쇼룸은 물론 카페와 라이프스타일숍.

갤러리, 플라워숍, 그리고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

오까지 알차게 들어서 있다. 낡은 신발 공장이

이토록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CHECK POINT 공간의 환기를 원한다면 강력 추천! 파이브 콤마, 히어리 등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고 수입 러그와 라탄 제품을 취급

하는 매장이 입점해 있다. 또한 스튜디오 공간은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성수연방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진 '길드 Guild'에서 착안해, 단순히 다양한 브랜드를 한곳에 모아둔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 간에가치를 공유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공간을 지향한다.

CHECK POINT 독특한 디저트를 찾고 있다면 성수연방에 입점해 있는 캐러멜 전문점에서 수 제 생 캐러멜을 맛볼 것. 중앙 정원에 위치한 파 빌리온 또한 시즌별로 색다른 공간 구성을 선보 여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포토 스폿이다.

>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4길 14 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10시 (매장별 상이) 문의 070-8866-0213



Support AMOREPACIFIC DESIGN CENTER

오랜 세월 한길을 고집하며 자신의 분야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있다. '장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다. 한평생 칠보 공예에 뜻을 두고 칠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노용숙 장인을 만났다. 칠보공예를 낯설게 느끼는 독자분들이 있을 것같아요. 칠보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바탕 재료에 다채로운 유약을 덧씌운 다음 구워내어 아름다운 색상을 연출하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 표현 기법의 하나에요. 약 500~900℃의 온도로 구워지는 유약은 바탕 재료의 성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속 바탕에 유약을 올려 구워낼경우 공기 중에 쉽게 색상이 변하거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점토 바탕의 경우 물을 흡수하지 않고 방수하는효과가 있죠. 다양한 유약의 개발로 여러가지 섬세한빛깔을 연출할 수 있어 예로부터 우리 생활 속에 뿌리내린 예술표현 기법이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칠보에 뜻을 두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대학에 진학해 생활미술학을 전공하면서 박물관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칠보에 대해 알게 되었고, 후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등에서 칠보 공예가 김지희 선생님, 김기련 선생님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점차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조금씩 칠보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지인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칠보 공예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가구, 생활용품, 장신구 등 매우 다양한 사물에 칠보를 접목해 작품으로 승화시키셨어요. 작업해보지 않은 재료와 과정에 관한 탐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제 가마 옆에는 언제나 실험 중인 재료와 색상들이 쌓여 있어요. 이번 설화수와 함께 한 실란 메이크업 제품 협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공부와 자극이 되어주었죠. 일상용품과 칠보공예를 접목하는 일은 언제나즐거운 것 같아요.

2019 설화수 실란 메이크업 작업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세 명의 작가들에게 '모란도' 그림을 제시하며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들었어요. 그중 한 명인 저는 용기디자인 차원의 문양 작업을 제시하여 함께하게 되었죠.

물론 과거에도 '눈꽃잔치' 작업으로 설화수 용기 위에 제가 작업한 칠보 문양판을 붙여보는 등 협업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수련 기간을 거쳤다고 할까요. (웃음)

설화수 협업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받으셨는지 궁금 해요 자연을 대할 때마다 사진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래된 한옥에서 만난 모란꽃을 찍어둔 것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이번 설화수와의 협업의 모티브가 되었죠. 밝지 않은 뜰 안에 있어 그 고운 자태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데, 카메라 앵글 안에서 제아름다움을 뽐내는 모란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어요.

이번 협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언제나 그 사물의 쓰임새에 부합되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쓰임새에 방해가 되지 않고 용기의 뚜껑 장식만으로도 이물건을 통해 표현해내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메시지, 분위기 등을 전부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가장 신경썼어요.

철보 공예를 해오신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일까요? 2007년에 제 작품이 유네스코 우수 공예품 인증작(UNESCO SEAL)으로 선정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연꽃을 모티브로 한 귀걸이와 목걸이 장신구세트였는데, 한복과 같은 전통의상에 노리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요즘의 현대 의상에 걸쳐도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저의 노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고 뿌듯했죠.

용산공예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학생들을 통해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나 에너지, 영감 같은 것을 얻기도 하시나요? 주변에 늘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죠. 저를 보고 배우는 이들이 있는 만큼 디자인을 하는 데에 있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되기도 하고요. 칠보 공예란 워낙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감성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초실력을 연마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제 작업의 폭 또한계속해서 넓어지게 되죠.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 같아요. 국내유일 칠보 공예 전승자로서, 그 책임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대한민국의 공예가로서 칠보공방의 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창작을 하고 기술연마를 해야만 대중 앞에 설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려고 해요. 그점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서도 출간하셨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 앞으로 칠보를 통해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나요? 제가 펴낸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예술」이 출간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요. 금속 공예와 칠보기법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기법 등을 배우기 쉽게 정리한 책이었죠. 현재 초심으로 돌아가우리 선조들의 기법에서 제가 찾아내서 전개한 아름다운 빛깔구이 칠보예술 작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화수와의 협업 내용까지 함께 잘 정리하여 제 한평생의 작업을 한 데 모은 저서를 출간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노용숙 용산공예관 칠보공방의 대표이자 아름다운 빛깔구이 연구회 대표. 우리나라 전통 칠보 공예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현대생활공예품과의 접목에 주력하고 있다.



THE BOOK OF MY LIFE



차가운 공기 탓인지 괜스레 쓸쓸해지는 가을,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책 한 권이 필요하다. 뷰티 피플 세 명에게 그들의 마음을 채워준 '인생 책'을 물었다.



이 봄
〈어반라이크〉 피처 에디터

내 인생의 책 로맹 가리, 「자기 앞의 생」.

열네 살의 소년 모모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은 그다지 아름답지만은 않다. 소외된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들의 삶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랑'을 잃지 않는다. 모모는 그들을 통해 인생을 깨우치고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배운다. 어린 모모가 감당하기 힘든 삶의 진실을 읽어 나갈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내 삶의 가치관과 생의 목적을 바꾼 책이다.

인상 깊은 구절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수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 그만큼 간과하기도 쉬운 말이 아닐까 싶다. 식물에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항상 사랑이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인식하게 되는 걸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그소중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문장이었다.

강 유 선 아모레퍼시픽 디자이너

내 인생의 책 폴 칼라니티, 「숨결이 바람 될 때」.
암에 걸린 젊은 의사의 회고록으로, 자기 앞에 남은
생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목적을 잃지
않고 남아 있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담담히 걸어가는
이야기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갓 태어난 케이디의 아버지로서
말이다. 봄과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책이 떠오른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하게 되는데,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고, 목적을 찾게끔 도와주는 책이다.
인상 깊은 구절 'I Can't go on. I'll go on.' 계속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아갈 거라는
의지가 담긴 이 문장이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만약
나에게 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민하게 만들었던 구절이다.





BARBARA KRUGER, FOREVER

나를 때리는 문장들 로비에서 '충분하면 만족하라'는 문장에 찔렸다면 거기서부터 바바라 크루거의 전시는 시작된다. 지하의 전시장에서는 새빨간 바탕 위에 꽉 차게쓴 '제발 웃어, 제발 울어'라고 소리치는 작품을 마주친다. 세계적인 개념미술 아티스트 바바라 크루거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초 개인전 〈바바라 크루거: 포에버 BARBARA KRUGER: FOREVER〉를 위해 처음으로 선보인 2점의 한글 설치로, 한글의 조형성에 반한그가 먼저 미술관에 제안했다고 한다. 전시장에서 가장인상적인 곳은 '영원히 forever'라는 단어를 벽과 바닥에큼지막하글자로 도배한 압박의 공간일 것이다.

버지니아 울프 Virginia Woolf의 〈자기만의 방〉에 나온 글귀 인 "지난 수 세기 동안 여성은 남성의 모습을 원래보다 두 배로 확대해 비춰주는 마력을 가진 거울 같은 역할을 해왔다"와 조지 오웰 George Orwell의 〈1984〉에서 고른 "만 약 당신이 미래의 그림을 원한다면 인간의 얼굴을 영원 히 짓밟는 군화를 상상하라" 등이 영어 대문자로 정면과 바닥에 쓰여 있다. 좌우측 벽면에도 "마지막에 다른 무언가 시작된다, 마지막에 넌 기회가 있었다"를 비롯해 14개의 전쟁 문구가 적힌 '전쟁' 문장 작품 등이 버티고 있다. 충격적인 문자의 압박 속에 서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남성과 여성, 영어 해석 능력 유무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 굳이 번역하지 않는 것도 전시의 원칙이다. 따라서 소비 지상주의와 젠더, 욕망, 전쟁 등을 겨냥한 비판이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바바라 크루거 스타일 바바라 크루거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뒤 잡지 편집 디자이너로 경력을 시작했다. 〈보그〉를 발행하는 출판 기업 콘데나스트의 〈마드무아젤〉 등의 잡지에서 일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물질만능 소사이어티를 공고히 하는 역할에 죄책 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아티스트의 길을 걷게 된다. 러시 아 구성주의 몽타주 기법, 현대의 광고 이미지 차용, 레 드와 블랙의 강렬한 대비, 실크 스크린 기법, 산 세리프 의 적극적인 사용 등이 바바라 크루거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는 붉은 박스의 흰 글씨, 푸투라 고딕의 디자인 조합이 가장 눈에 잘 띈다는 사실 도 감각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87년작인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일 텐데, 데카르트 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가볍게 비틀 어 소비지상주의 사회를 비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장은 자신의 소비를 변명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문장 으로도 유용했다. 로고만 박으면 벽돌마저 팔리는 수퍼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 Supreme이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를 디자인했다는 사실도 유명하다. 슈프림과 관련해 흥미로운 일화는 하나 더 있다. 'married to the mob'이라는 브랜드의 'supreme bitch' 컬렉션을 두고 '진짜' 슈프림이 특유의 레드 박스 로고 디자인을 침해했 다는 이유로 1000만 달러짜리 소송을 벌인 것. 결국 슈 프림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끝났지만, 이에 대해 바바라 크루거는 "내 작업은 이런 바보 멍청이들에 대한 겁니다 난 그들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나를 고소하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미술관을 벗어난 사회 참여적 작업 바바라 크루거는 미술 관을 벗어나 광고판, 티셔츠, 가방, 잡지 표지 등 다양한 대중 매체를 활용한 실천적 작품이 많다는 것도 여느 작 가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대표적인 페미니즘 아티 스트로 손꼽히는 바바라 크루거는 1981년 남성의 시선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을 주제로 한 '당신의 시선이 내 뺨을 때린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기시작했다. 또한 1989년 워싱턴에서 벌어진 낙태법 철회를 위한 여성 시위에 힘을 싣고자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는 포스터를 인쇄해 직접 붙이고 다녔을 만큼,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티스트다. 아카이브룸에서 살필 수있는 잡지 표지 작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당시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얼굴 위에 대놓고 '실패자 loser'라고 쓴 〈뉴욕〉매거진의 2016년 미국 대선 특집호 등을비롯해 〈에스콰이어〉, 〈월페이퍼〉, 〈W〉 등과의 작업을볼 수 있는데, 그녀가 전직 편집 디자이너였다는 사실을 저절로 떠올리게 할 만큼 절묘하고 기가 막히다.

전시를 보려고 내려가던 미술관 계단에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바늘이 눈을 찌르려는 장면을 담은 '모욕하라 비난하라'를 처음 마주쳤을 땐 피하고 싶어 눈을 감았 다. 밖으로 나올 때 다시 봤을 때도 양 어깨가 올라올 만 큼 움찔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다. 자 신에게 들이대는 카메라 역시 폭력적이라고 생각해 지난 40여 년간 기자 회견을 거부해왔다는 바바라 크루거를 떠올리면서. 다양한 매체를 타고 미술관 밖에서 더욱 뜨 겁게 현실을 말하는 그녀는 이제 겨우 74세다. 1980년대 부터 최근까지 선보인 바바라 크루거의 주요 작품을 총 망라한 이번 전시는 12월 29일까지 서울 용산 아모레퍼 시픽미술관에서 열린다.

> 버시니아 울프의 〈사기단의 방〉, 조지 오웰의 〈1984〉 등의 글귀를 사방으로 도배한 '영원히 forever'.



Words

WHEN LIFE NEEDS ART

예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Words Illustrator
WOO JI HYUN JO SUNG HEUM

답답한 마음이 며칠째 계속되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가라앉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나자신을 구슬리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홀로 고립된 느낌이랄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감정들 속에서 제자리걸음만 하는 기분이었다. 이따금 찾아오는 감정의 파고에서 나는 늘 어찌할바를 모른다. 그냥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해결 불가능한 날들이 지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을 나섰다. 걷다 보면 기분이 나아지곤 하니까. 한참을 걷고 또 걷다가 집 근처 영화관으로 향했다. 상영시간표를 살펴보다가 다큐멘터리 영화〈호크니〉(Hockney, 2014)를 발견했다. 영국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삶과 사랑 그리고 예술세계가 담긴 좋은 영화였지만, 마음이 복잡해서인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 다만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간 후 극장을 나서는데, 영화 속의한 장면인 말리부의 회색 바다가 계속 떠올랐다. 온통 회색빛 세상에서 이리저리 일렁이던 파도의 움직임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 서재로 향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쭉 홅다가 한 권의 책을 집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 테이트 모던에서 2017년에 발간한 「데이비드 호크니」였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순회하며 대규모 회고 전이 열리던 시기의 전시 도록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화가로 활동하며 끊임없이 진화한 호크니의 작품세계가 담긴 화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만에 책을 펼쳐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그림에서 손길이 멈췄다. 호크니의 「말리부에서의 아침식사, 수요일」이었다.

그림 속 말리부에는 아침이 찾아왔다. 식사 시간이 지만 테이블 위에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그릇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다. 아침 식사가 이미 끝난 것일까?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일까? 방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빈 의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창밖에는 파도가 휘몰아친다. 태평양의 거친 파도가 금방이라도 모든 걸 덮칠 것만 같다. 분명 방안에 자리하고 있지만, 실내와 실외의 경계가 모호하다. 자연계와 내부 공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현실과 환상 사이를 넘나들게 된다. 마치 격랑의 바닷속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그림은 호크니가 미국의 할리우드 힐스에서 말리 부의 바닷가로 이사한 이듬해인 1989년에 그린 작품으로, 당시 그는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오랜지인 중 3분의 2가량이 에이즈로 인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들의 연속된 죽음으로 그는 몹시 괴로워했는데, 그림 속 창문 너머로 출렁이는 파도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으로 점철된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간 무거웠던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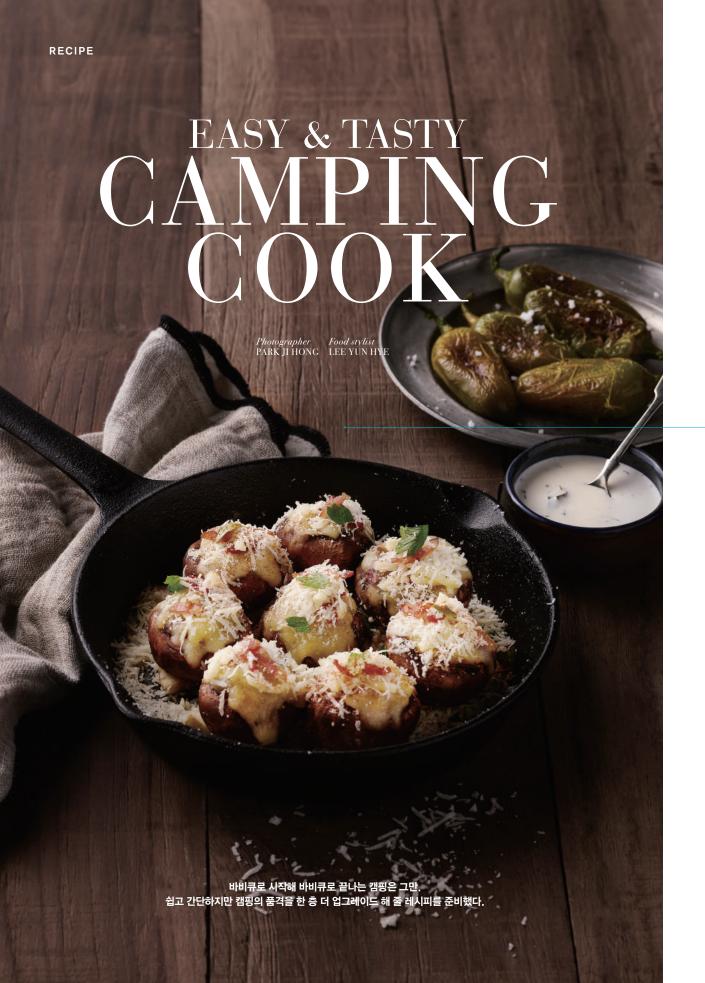
예술에는 다양한 힘이 있다. 섣불리 위로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묵묵히 공감해주는 힘. 나조차 알지 못했던 속마음을 응시하게 하는 힘. 어지러이 엉켜 있던 생각과 감정을 구별하게 하는 힘.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힘.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을 다스리고 보살피게 하는 힘. 영원히 지속되는 슬픔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힘.

알다시피 삶은 힘들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시련은 피할 길이 없고, 곳곳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 이다. 불가해한 감정들은 불시에 마음을 덮치고, 느닷없이 찾아온 고통에 영혼은 쉬이 잠식당한다. 함께여도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으며, 거대한 고독 속에서 한 없이 무력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삶을 구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닌가 싶다. 다양한 예술 중에서도, 내게는 그런 모든 순간에 그림이 있었다. 사는 게 벅차고 힘겨울 때,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을 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언제나 필요한 것은 그림이었다.

문득 호크니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는 2010년 2월, 절친한 친구이자 미술 평론가인 마틴 게이퍼드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일 반 고흐가 그와 같이 고립되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멀리 그리고 그렇게 빨리 나아갈 수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호크니는 고흐를 예로 들었지만 어쩐지 나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의 말처럼, 고립은 멈춘 상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예술이 삶을 구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술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

우지현

화가이자 작가인 우지현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잡지, 웹진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 〈혼자 있기 좋은 방〉, 〈나의 사적인 그림〉 등을 펴냈다.



캠핑의 꽃! 꼬치구이

바비큐를 즐기고 난 뒤 남은 고기와 야채를 활용해 꼬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한 가지 팁은 꼬치 속 재료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 두께와 크기가 비슷해야 재료를 태우지 않고 고르게 익힐 수 있다.

재료 소 등심 200g, 주키니 1/2개, 가지 1/2개, 양송이버섯 5개, 방울토마토 5개, 적양파 1/2개, 올리브오일 3큰술, 소금, 후추, 파프리카 파우더 약가씩

만드는 법 1 한 입 크기로 자른 소고기는 칼집을 넣어 올리브오일과 소금. 후추. 파프리카 파우더에 버무려 재운다. 2 주키니와 가지. 양송이버섯과 적양파는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에 버무려둔다. 3 준비한 재료를 꼬치에 끼워. 달군 그릴 팬에 고루 굽는다. 4 취향에 따라 구운 옥수수와 당근. 바질 페스토를 곁들여 먹는다.

한입에 쏙, 양송이 구이

버섯의 맛과 향이 진해지는 가을. 양송이버섯과 갖가지 야채 그리고 치즈가 어우러져 영양은 물론. 입안 가득 풍부한 맛과 향을 선사한다.

재료 양송이버섯 8개, 베이컨 2장, 시금치 5뿌리, 양파 1/8개, 옥수수 1큰술, 블랙 올리브, 모차렐라 치조 1/2컵, 파마산 치즈 2큰술, 소금, 후추, 파슬리 약간씩 만드는 법 1 베이컨을 잘게 잘라 구운 후 키친타월에 올려 기름을 뺀다. 2 시금치와 굵게 다진 양파를 볶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3 팬에 기둥을 뗀 양송이버섯을 뒤집어 놓고, 볶아 놓은 재료를 올린다. 4 그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뿌린 후 팬에 뚜껑을 올려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약불에서 기다린다. 5 치즈가 녹은 때마산 치즈를 갈아 올리고, 파슬리를 더한다.

촉촉 향긋 파피요트

닭이나 생선류를 유산지 또는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익히는 요리를 뜻하는 '파피요트'는 캠핑장의 분위기를 로맨틱하게 만들어준다. 싱싱한 해산물과 아채가 향긋한 로즈마리와 어우러져 한끼 식사는 물론 와인 안주로도 부족함이 없다.

재료 흰살생선, 청경채 3뿌리, 적양파 1/4개, 삶은 알감자 3개, 레몬 1조각, 타임,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약간씩

만드는 법 1 흰살생선과 삶은 알감자, 채 썬 적양파와 청경채를 올리브오일과 소금. 후추에 재워 둔다. 2 종이 포일 안에 재워 둔 재료를 담고, 레몬 한 조각과 타임을 올린 후 포일로 감싼다. 3 팬에 물을 조금 붓고 포일로 감싼 재료를 올린 후 뚜껑을 덮어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힌다. 4 재료가 다 익으면 포일을 열고 레몬즙을 뿌려 마무리한다.





IT'S CAMPING TIME



위치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017-15 홈페이지 yeosucamping.co.kr 문의 061-644-4077



여수 굴전여가캠핑장

여수 굴전여가캠핑장은 저절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만드는 낭만적인 여수 밤바다를 마주하고 있다. 폐교를 캠핑장으로 개조한 곳으로 캠핑장 곳곳에 바다 황토 올레길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해마다 늦가을이면 천연기념물 고니가 무리를 지어 날아와 이듬해 봄까지 머물기 때문에 타이밍만 맞으면 우아한 고니의 모습도 볼 수 있다. 한편, 캠핑장 이름에 걸맞게 길만 건너면 굴 양식장이 있다. 눈앞에 굴 밭이 펼쳐지니, 제철을 맞이한 신선한 굴도 놓치지 말고 맛볼 것을 추천하다.

Illustrator

서산 삼원레저타운

삼원레저타운은 서산과 태안의 경계에 자리해 서태안의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기 좋다. 원래 'Par3 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넓은 잔디에서 캠핑은 물론 승마 체험과 워크숍. 각종 세미나 등 단체행사도 가능한 팔방미인 캠핑장이다. 당일 피크닉을 비롯해 다양한 캠핑 패키지가 갖춰져 있어 캠핑 초보자에게도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준다. 푸른 골프장 잔디 위에 펼쳐진 캠핑사이트는 정원수와 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위치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서낭골길 204 홈페이지 samwonleisure.com 문의 041-663-1111

캠핑과 함께 이색 체험을 원한다면

위치 제주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271-40 홈페이지 jejudolharbang.com 문의 070-4548-9705



제주 돌하르방 캠핑장

천혜의 자연이 살아있는 제주에서의 캠핑은 어떨까? 한경면에 위치한 돌하르방 캠핑장은 잔디마당과 수영장, 족구장,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아이와 캠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밤에는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던 별자리의 별들까지 그야말로 별빛이 내리는 환상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주변 관광지로 한림공원, 오설록, 협재 해수욕장 등이 있어 제주 여행과 특별한 캠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경주 화랑의 언덕

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초원과 푸른 산줄기. 이곳이 알프스산맥인지, 한국인지 눈을 의심케 했던 캠핑클럽의 두 번째 캠핑지인 경주 화랑의 언덕은 단석산 줄기에 위치한 신비로운 장소다.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과 감동적인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상바위는 화랑의 언덕을 찾는 이들의 필수 코스. 이외에도 전망대 아래는 양떼 목장이, 수의지 호수에는 돼지 섬이 조성되어 있어 깜찍한 동물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 단, 현재 캠핑장은 운영되지 않으니 방문 전 확인은 필수다.



위치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산261-1 인스타그램 @gyeongju_okgreen 문의 0507-1313-7143



캠핑클럽이 발견한 숨겨진 장소



가평에 위치한 캠핑어클락은 캠핑을 좋아하는 전문 캠퍼가 만든 숨은 보석 같은 곳이다. 수십 년 자라온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반딧불이 반짝이는 청정 계곡은 물놀이에 제격이다. 이곳은 가족, 이웃, 자연이 함께하며 교류하는 캠핑장을 만들고자 분기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넓은 잔디마당에서 보물찾기, 플리마켓, 야시장, 할로윈 이벤트 등을 연다고 하니, 아름다운 자연에서 좋은 캠퍼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찾아가 보자.



위치 경기 가평군 조종면 연인산로 474번길 27 홈페이지 www.campingoclock.com

문의 031-585-3509



수도권과 가까운 캠핑지에서 하룻밤





위치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70 홈페이지 www.93camp.kr **문의** 054-788-9355

울진 구산오토캠핑장

캠핑클럽에서 핑클 멤버들이 처음 찾은 바닷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구산해수욕장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해송, 새하얀 백사장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뻥 뚫리게 만든다. 십 리에 가까운 넓은 백사장을 거닐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와 깨끗한 바다를 바라보며 한적한 기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관동팔경의 절정이라 불리는 월송정이 위치한 송림이 우거진 숲에서 근사한 캠핑의 밤을 보내보자.

위치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홈페이지 www.seasidehillcamp.co.kr 문의 0507-1334-3132



인천 씨사이드힐 캠핑장

수도권과 가까운 바다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을 때. 마니산 끝자락 바닷가 언덕에 위치한 씨사이드힐 캠핑장을 기억하자. 잔잔한 호수처럼 아름다운 바다와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은 감탄을 자아내는 서해의 일몰이 매력적이다. 바다 풍경을 담은 야경도 멋있어 캠퍼들 사이에서 사진 찍기 좋은 캠핑장으로 입소문 나 있다. 동막 해수욕장, 강화 갯벌센터, 루지를 체험할 수 있는 강화 리조트, 옥토끼 우주센터 등 주변 볼거리도

62 HYANGJANG HYANGJANG 63

10월 카운셀러 몰 소식 확인하기

국민 뷰티 어플 뷰티Q가 카운셀러 몰로 더 새로워지고 강력해져 돌아왔습니다! 방판 고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카운셀러' 어플에서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뷰티&라이프 상품을 만나보세요.



카운셀러 몰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마켓

고객 맞춤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마켓입니다. 생필품부터 소형가전, 뷰티 용품까지 원하는 상품을 타임세일. 1천 원 딜 등의 혜택을 통해 만나보세요. 오픈 기념, 전 제품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콘텐츠

키운셀러 몰에서는 뷰티&라이프 상품뿐만 아니라 뷰티 꿀팁과 운세, 여행 정보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쇼핑은 물론 여가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카운셀러 몰에 놀러 오세요!

혜택

친구 초대, 출석 체크, 퀴즈, 리뷰 작성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면 뷰티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한 리워드 '클로버'가 주어집니다. 일일 200 클로버 이상 적립 시 바로 전환 가능하며, 매일 밤 12시에 자동 소멸되므로 클로버가 모이는 즉시 전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